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 공정성 향상 위해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 배제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사진)은 20일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구별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방의원이 중앙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등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이 있어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의석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의회의 경우, 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6곳의 지역 중 10곳(서울, 부산, 대수,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전북)이, 6회 지방선거에서는 17곳 중 5곳(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이 1당 비율이 90%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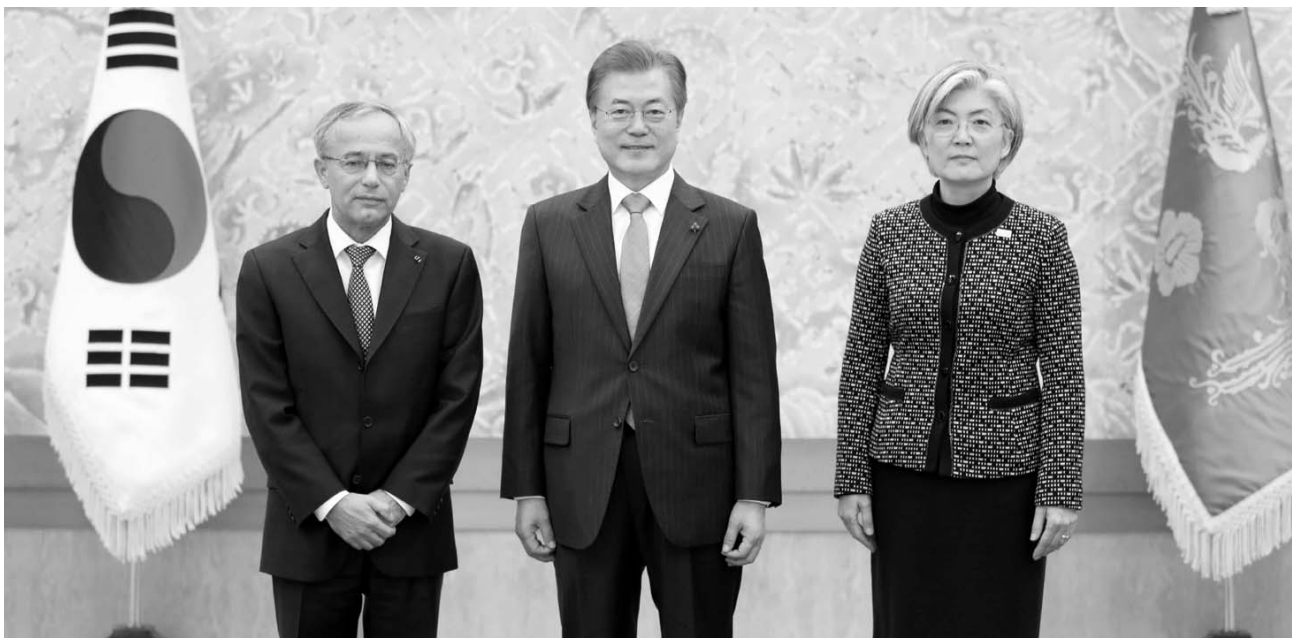
기초의회 선거결과도 다르지 않다. 1당이 전체 의석 중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230곳 중 123곳(53.4%), 5회 지방선거에는 82곳(35.6%), 6회 지방선거에서는 101곳(43.9%)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주한 대사 신임장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누엘 안또니오 곤살브스 드 제주스 주한 포르투갈 대사에게 신임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전북도 2019년 국가예산확보 초석 다진다

국가예산업무 역량강화
도 · 시군 합동 워크숍

전북도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첫 시동을 걸고 본격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군 국가예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부터 22일까지 진안 홍삼빌에서 도·시군 합동 워크숍을 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8년 국가예산이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 착수 하고 있어 역대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거둔 2018년 국가예산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 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상반기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하반기 워크숍은 도 및 시군 국가예산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예산업무를 함께 공유하고 동시에 지난 2018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 및 미흡사항을 환류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맞는 2019년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함께 모색하는 등 도-시군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그 동안 중앙부처, 국회 등 예산확보 현장활동과정에서 느낀점으로 국가예산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예산순기, 행정절차이행, 기재부 및 국회단계에서의 대응요령 등 예산시스템에 대한 미숙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의료원, 공중보건의 배정된다

소아청소년과에 내년 4월

내년 4월이면 군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일 군산지역 소아응급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산의료원과 협의해 내년 4월부터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군산1)가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군산·남원·진안지역의 공공의료원에 평일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현재 도내 378명에 이르는 공중보건의 중 17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도내 군산·남원·진안의료원에 우선 배치하도록 조정해 인력을 활용하면 전북도가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이 충분히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군산의료원에 우선적으로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를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군산지역은 대형병원이 없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넌 1,100건 이상의 응급 소아 환자들이 인근 전북대와 원광대 병원을 찾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적으로 군산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를 배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남원, 진안의료원에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황산 옛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착수

김제시 황산동 덕조마을 일원 옛 미군 미사일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연구용역 등 원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김제시 종합재난상황실에서 공군 김제포대, 전라북도 관계자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와 (재)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옛 미군부대 주변지역 토양오염 원인조사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부의장은, "이번 용역조사를 통해서 지난 1970년대 초까지 미군 미사일기지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기름탱크 경유 유출 등으로 이루어진 토양오염 등 그 동안의 환경훼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했다"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정화 및 피해보상의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황산부대를 주민들의 품에 돌려주어 쾌적한 환경보전과 도심 시민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폭력피해자 동반자 '서부해바라기센터' 문 활짝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시설인 '전북 서부해바라기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20일 '전북 서부해바라기센터'가 원광대학병원(병원장 최두영)에 개소했다.

지난 4월 여가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개소하게 된 이번 센터는 전북대학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위기형, 아동형)에 이어 세 번째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가 전주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고, 특히 전북 서부지역 피해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익산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김제시 등 전북 서부권지역의 피해자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광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김병륜차장이 센터 소장을 맡고 필요시는 원내 전문의가 치료를 지원한다.

병원 측은 센터 설치를 위해 원내 약 380㎡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설치비와 센터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한다.

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전북 서부해바라기센터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상속포기공고

망 김형남(1970. 7. 18.생 2017. 9. 30.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오현순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느단632 상속포기
판사 오현순
▶피상속인: 망 김형남(1970. 7. 18.생
2017. 9. 30. 사망)
최후주소: 군산시 동아로 17, 508호
(산북동, 부항하나로아파트)
▶공고인: 김영자
▶상속포기수리일: 2017. 11. 7.
▶공고기간: 2017. 12. 21. ~ 2018. 2. 20.
▶주소: (청구인 김영자의 주소)
군산시 미룡로 12, 102동 1403호
(미룡동, 군산미룡1주공아파트)
010-9439-1961